

특집논문

『제국신문』, 근대 여성의 지식·담론·재현의 장

김복순 |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

- 1907년 이후 -

김기란 |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대중문화적 의의

- 신소설과 신연극의 상호참조를 통한 여성의 멜로드라마적 형상화 -

최기숙 | 이념의 근대와 분열/착종되는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담론

- 『제국신문』 논설·기서(별보)·서사의 여성 담론과 재현 -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

- 1907년 이후 -

김복순*

「차례」

1. 1907년의 역사적 위치
2. 학문론의 자기인식과 현실주의의 타자성
 - 2.1. 역사학: 기재(箕子) 중심·속국(보호국) 탈피의 자국사 인식
 - 2.2. 가정학: '제도로서의 주부'학에서 '에티켓의 제도화'로
 - 2.3. 윤리학: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유'된 응용과학으로서의 '윤리학'
3. 맺는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그간 소개·연구된 바 없는 『제국신문』 1907년부터 1909년까지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1907년은 역사적 위치를 의미하는 지점이다. 이 해를 분기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학술적 변화가 시도되었고, 친일/항일의 갈림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발간된 후, 학문론을 대대적으로 연재했던 신문은 없었다. 1907년 5월 17일 지면을 확장하는 등 새롭게 출발한 『제국신문』은 5월 20일부터 학문론을 게재하기 시작한다. 동 시기의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소년 한반도』 『서우』 등이 주로 국가학, 국제공법학, 사회학, 경제학, 법률학, 정치학 등을 다뤘다면, 『제국신문』은 역사학,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가정학, 윤리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제국신문』의 학문론은 실학이라는 방법적 틀에 의지해 학문개념의 변용을 시도하였으며, 계몽의 관념성을 탈피하고 실천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실학 정신을 협애화 하는 방향이었으며, 그 키워드는 실천화, 순응화였다. 이는 풍속개량 중심의 문명론이 지닌 필연적 결과였다.

실학적 변용은 분명 효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1907년 이후 협애화·순응화의 방향은 더 이상 식민화를 극복할 방법론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국신문』 학문론의 허구성 및 타자성이 드러난다. 이것이 『제국신문』 학문론의 공/과이다.

핵심어: 역사학, 가정학, 윤리학, 수신, 신·구학 논쟁, 기재(箕子), 박정동, 이해조, 주부, 에티켓, 시모다 우타코

1. 1907년의 역사적 위치

우리 역사에서 시기구분점으로 작동하는 1905년과 1910년 외에, 1907년을 중요하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1907년은 학문적·정치적·문화적·학술적으로 친일/항일의 갈림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¹⁾ 1907년은 정치적으로 볼 때 이준의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해이며, 법령제정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정미7조 약이 강행된 해이다. 이를 성사시킨 것은 주지하다시피 바로앞서 등장한 이완용 친일내각이다.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박탈하였고 기존의 외교권 외에 자위권까지 침탈하였으며, 정치적

1) 앙드레 슈미트,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106쪽.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조선은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1910년의 병합이 예고된 사건으로서 형식적 의미를 띠는 것이라면, 내용적으로는 1907년 정미7조약 이후 이미 국망 상태였던 것이다. 정미7조약에 이르러 우파적 분화현상이 일어났다²⁾고 본 것은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의병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이전부터 『대한자강회월보』(1906)를 비롯해 속속 창간된 학술지 성격의 잡지들은 지식장을 재검검 하는 대대적인 점검운동을 벌이게 된다. 학문 전반이 재편되면서 가히 ‘지식혁명’에 버금가는 대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열기는 신·구학 논쟁으로 점화되어 1908년까지 지속된다. 이 논쟁은 당대 학문(지식)의 성격에 대해 논한 것으로서, 통섭적 학문으로서의 전통적 구지식(구학문)과 분과학문적 신지식(신학문)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를 묻고 있다.³⁾ 학문의 ‘의미’ 뿐 아니라 향후 학문의 ‘방법’까지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 논쟁 역시 친일/항일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문론은 주로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신문 중 학문론을 대대적으로 연재한 것은 『제국신문』이 유일하다. 『독립신문』이 생물학을 연재한 바는 있으나, 짧게 생물학 분야 하나에 그쳤고, 그 이후 신문에 학문론이 연재된 적은 없다. 1907년 5월 17일 지면을 확장하는 등 새롭게 출발한 『제국신문』⁴⁾은 5월 20일부터 학문론을 게재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1면 톱기사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신문사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논설이 2면 톱으로 실리는데 반해 학문론은 항상 1면 톱의 자리를 내어주

지 않았다. 논설은 주로 정운복이, 본명 또는 탄해생(탄해생)이란 필명으로 맡아 썼으며, 학문론은 박정동, 이인직, 이해조가 기자로 투입되어 집필하였다. 박정동과 이인직은 객원 형태였으며, 이해조는 소설 및 학문론을 쓰면서 폭넓게 기자로 참여하였다.⁵⁾

학문론의 첫회는 ‘잡보’란으로 시작하였지만, 2회부터는 ‘잡보’ 명칭을 삭제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언제 폐간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점에, 『제국신문』은 왜 학문론에 전념한 것일까. 더구나 『제국신문』은 다른 학술지들이 중요시 한 것과는 조금 다른 학문들을 소개하였다.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소년 한반도』 『서우』 등이 주로 국가학, 국제공법학, 사회학, 경제학, 법률학, 정치학 등을 다뤘다면,⁶⁾ 『제국신문』이 강조한 것은 역사학(「본국력사」 「국민의 수지」), 가정학, 윤리학이었다. 학문·론은 물리학·리학으로 시작되지만 이들은 다른 학술지에서도 거의 다룬 것들이었고, 또 하나의 분과학문인 지리학 영역의 ‘초등지리」 역시 다른 잡지에서 소개된 바 있는 것이었다. 거기다 「초등지리」는 1면 톱이 아니라 1면 두 번째 기사로 소개된 데다가 연재 기간도 짧아⁷⁾ 『제국신문』이 중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정학」은 『조양보』와 『호남학보』에만, 윤리학」은 『장학보』 『대한학회월보』 『기호홍학회월보』에서만 다루었다.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다른 잡지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편적인 성격을 벗어나 본격적인 역사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역사학은 당시 잡지들이 분류한 분과학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국신문』이 본격적으로 ‘학문화’ 한 가정학, 윤리학, 역사학은 이기

2) 조동길, 「한말 계몽주의의 구조와 독립운동상의 위치」, 『한국학논총』 11, 1989, 97-140쪽.

3) 신·구학 논쟁에 대해서는 이광린, 「구한말 신학과 구학의 논쟁」, 『동방학지』 23·24, 1980, 1-16쪽.; 백동현, 「대한제국기 신구학 논쟁의 전개와 그 의의」, 『한국사상사학』 19, 2002, 571-604쪽.

4) 4단 체제에서 6단 체제로 변형하였으며, 국문 문체만 사용하던 것에서 한문체 기사도 신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의 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전략인데, 역으로 『대한매일신보』는 국문독자를 흡인하기 위해 1907년 5월 23일자부터 국문판을 창간한다.

5) 1907.6.7.일자로 편집진이 보강되는데, 정운복은 편집원으로 추천되고 박정동 이해조 이인직은 보수에 관계없이 자원 근무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社告」 참조. 1907.6.8.자 사설 ‘첫 인사’ 이후 논설은 주로 정운복이 담당하였고, 창간 당시부터 사장으로 있었던 이종일은 신문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1907.9.20.에 폐간을 선언하고 발간을 중지한 후 10월 3일자로 속간하는데, 이 때 신문사를 인수한 사람은 정운복(제4대 사장)이었다.

6) 각 학술지에서 다룬 학문 범주에 관한 통계는 구장률, 『근대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케포이북스, 2012, 50-52쪽 참조.

7) 1908.3.4.-4.2까지 연재기간이 짧았다. 이 역시 박정동의 저술로 추정된다.

(李沂)가 언급한 바, ‘사농공상 공통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신문보 다도 인민, 국민, 동포에 민감했던 『제국신문』은 학문과 관련하여서도 남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국신문』은 법률과 풍속 개량에 의한 민지개발을 목적으로 창간되었음을 밝힌 바 있으며,⁸⁾ 주 독자층도 하층민, 부녀자였다.⁹⁾ 창간 10주년을 맞은 1908.8.16.의 사실 본사의 희망』에서도 ‘이익’을 위해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문을 능통치 못하는 남 녀동포의 지식을 개발함’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국신문』의 학문론이 당시 유행하던 다른 분과학문을 제쳐 놓고 역사학, 가정학, 윤리학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신문사의 ‘목적’ 및 ‘희망’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당시의 『제국신문』이 기자난에 봉착하여 다양한 취재를 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을 수 있다. 논설 부문이 정운복 1인 체제나 다름 없는 상태로 운영된 것도 이러한 속사정에 기인한다. 학문론은 기자난에 봉착한 『제국신문』의 지면 메우기 전략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학문론 연재에 부친 신문사측의 입장을 검토하면 『제국신문』사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신령한 것은 아는 것이 잇슴이오 그 안다는 것은 사람이 었지하야 세상에 싱것스며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하얏스며...(중략)...세상 만물이 다 각각 그 형테는 었더하며 그 물건의 소용은 각각 었더히 지 분명히 안 후에 가위 사람이라 할 것이오...(중략)..물으게 되면 인싱 싱활 상 리치를 몰으는 자라 홀지니 그런 리치를 몰으면 일기 동물에 지너지 안이 홀지로다...(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로 교육에 제도가 갖추지 못하야 소 위 교육이란 것은 남의 나라 글즈 비호는 것으로 주지를 삼고 기타 인민 싱 활상 리치는 같아치고 비호는 일이 업섯는 고로 전국 인민의 지식이 몽미하 야 오날날 이 어둡고 잔약한 상황에 이르렀더니...(중략)..본보 지면을 확장하

8) 1898.8.12. 「고백」

9) 1907.9.17. 논설 “본 신문 구람하는 사림들을 상고하건덕 소위 상등사회 사람이라고 는 보는 이가 적고 모다 무식하거나 하등사회에서 만이 보느니라”

고 각종 학술을 만이 기지하야 신문 익독하시는 일반 동포로 하야곰 세상 형 편도 신속히 보고하려니와 학문상 대지를 날마다 기록하야 본사의 적은 정성을 표하고자 하와...¹⁰⁾

좀 길게 인용했지만, 단순히 기자난에 봉착해서가 아니라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아야 사람이라는 것, 아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라는 것, 알지 못하면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다. 한문을 ‘남’의 나라 글자라고 지적하면서 자국, 자국민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당대의 정치적 상황이 바로 그러한 몽매함 때문이라고 역설함으로써 탈식민적 인식까지 드러내 준다. 문명개화를 이루려면, 나아가 식민화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학문을 해야 한다는 근대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제국신문』은 학문론을 근대화, 탈식민화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립신문』이 ‘국가’에 착목하고, 『황성신문』이 ‘동양’을 재해석하여 변동을 이끌어냈으며, 동시대의 『대한매일신보』가 ‘민족’을 발견하였다면, 『제국신문』은 ‘법률과 풍속 개량’을 전제로 한 현실주의적 문명화론을 펴고 있었다. 법률의 공정한 시행과 풍속 개량에 의한 민지개발을 토대로 국권회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단순히 서구 물질문명의 수용보다, 수용에 따른 변화로서의 질서나 윤리의 문란에 대해 ‘비판’을 늦추지 않았다. 서양풍속을 일방적으로 추수할 것이 아니라 ‘동양의 옛법과 우리의 인정습관을 참호(參互)하여 가장 적당하게’¹¹⁾ 적용하여 ‘새 법’¹²⁾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일방적 추수가 아니라 ‘비교’라는 인식틀을 작동시키고 있었다.¹³⁾ ‘국가’ ‘동양’ 등 거대담론에 함몰되지 않고, 풍속개량을

10) 1907.5.20. 1면. 이하 인용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맞춤법에 의거하여 띄어쓰기를 하기로 한다.

11) 1907.8.17.

12) 탄희칭, 「여자 개가 허홀 일」, 1907.10.10.

13) 1907.10.3. 세계만국의 풍속이 서로 같지 않으니 ‘비교’하여 공평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자고 말하고 있다. 탄희칭, 「풍속개량론」 참조.

통한 실력양성이 국권 수호 및 국가발전의 운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제국신문』은 국가·동양 등의 거대담론 못지 않게 의병들의 무장투쟁을 회의적으로 본다. 무장투쟁은 국권회복을 가져온다기보다, 오히려 국권의 침탈을 가져오리라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¹⁴⁾ 문명의 시선은 미실현 된 ‘미래의 시간’이지만, 풍속은 ‘현재의 시간’이다.¹⁵⁾ 현실주의는 바로 이러한 ‘현재의 시간’에서 도출된다.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은 ‘일상’ 및 ‘풍속’의 차원으로 급선회하면서 현실주의로 변모하거나 순응화 된다. ‘정치개혁보다 풍속개혁이 급하다’¹⁶⁾는 주장은 현실주의와 순응화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전문적 서책만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석하고자 한 것이 태서사회의 문제’¹⁷⁾라는 지적은 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¹⁸⁾ 서책의 내용과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과 연결된다. 근대초기 실사구시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업(實業) 또는 성리학적인 고담준론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식의 탐구를 일컫는 개념으로 변용되었다. 실사에는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들, 근대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실학이라는 17-19세기의 정신현상은 근대초기 역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¹⁹⁾ 『제국신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국신문』이 다양한 학문 분야 중 위의 세 분야만 적극적으로 취사선택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국신문』은 마치 ‘학교’처럼

14) 최기영,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48-56쪽.

15) 나라타 류이치, 『시간의 근대』, 『근대 지의 성립』, 소명출판, 2011, 17-73쪽.

16) 1907.10.9.

17) 1901.2.3. 『동야교통론』.

18) 물론 이 부분은, 그 대안으로 ‘동야’를 제시하는 논리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9)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21세기에 실학을 읽는다』, 한길사, 2014, 15쪽. 여기서 ‘실학’은 역사적 개념이다. 실학의 개념 및 내포와 외연, 근대성 및 근대국복과의 연관, 동아시아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 책 참조.

그 어느 잡지보다 상세하면서도 길고 본격적으로 학문론을 다루고 있는데, 타 신문과 달리 특정 학문을 선택한 『제국신문』의 기획은 어떤 의미였으며,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제국신문』의 학문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연구된 바 없다. 초기는 『황성신문』에 가려, 중·후기는 『대한매일신보』에 가려 폄하된 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1907년 중반 이후의 자료는 구하지 못해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 본고는 미발굴 자료를 입수해 그간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학문론의 자기인식과 현실주의의 타자성

2.1. 역사학: 기재(箕子) 중심·속국(보호국) 탈피의 자국사 인식

『제국신문』은 물리학을 연재하던 도중 갑자기 1907년 6월 8일의 17회 연재분 다음으로 「본국력스」를 연재하기 시작한다.²⁰⁾ 물리학은 2단 이하로 밀려나고 「본국력스」를 1면 톱으로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본국력스」 연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즉 물리학 보다 역사 문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재 동기는 다음과 같다.

....력스는 무엇을 가르침이오 나라의 처음 기국훈 이후 시덕마다 정치의 득실과 풍속의 선악을 기록한 글이라 그런즉 인민이 되어 조국나라의 력스를 몰음이 었지 가히리오 자국나라 력스를 몰으면 자기 집안의 세계를 아지 못함과 일반이라 었지 형세하기를 바리리오 본 기자가 항상 혼탄흔는 바는 우리나라 동포가 우리나라 력스는 캄캄히 몰으고 남의 나라 중원력스만 알고자 하는 까닭으로 글 넓은 아히를 통감사력만 가라쳐서 그 아히가 장성흔

20) 헤이그 밀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1907년 1월 고종의 뜻에 따라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기로 하고, 이준이 6월 4일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이상설과 러시아 공사 이법진 및 이위중을 만난다. 「본국력스」는 바로 이 때 ‘갑자기’ 연재되기 시작한다.

후 우리나라 일은 한아도 몰고 증원 일만 알기로 그 스상이 즈쥬홀 줄은 조곰도 싱각지 안이하고 남의 의뢰함을 달게 녀이니 엇지 슣흐지 안으리오 (1097.6.9.)

자국 역사를 알아야 함은 인민의 의무이며, 자국 역사를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교육과정은 자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자주사상이 없었다는 것, 그 때문에 의뢰심이 심하다는 것, 증원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점 등이 요지이다. 자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인민의 의무, 외세에 대한 자주권 수립, 민족의식 함양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국력스」의 내용을 보면 단군(조선)은 1/2회, 기조(조선)는 8회, 기씨마한은 6회까지 이어진다.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1907.6.9	본국력스 / 단군(조선)	1907.6.19	기조(조선) ⑧
6.11	기조(조선) ①	6.20	기씨마한 ①
6.12	기조(조선) ②	6.21	기씨마한 ②
6.13	기조(조선) ③	6.22	기씨마한 ③
6.14	기조(조선) ④	6.23	기씨마한 ④
6.15	기조(조선) ⑤	6.25	기씨마한 ⑤
6.16	기조(조선) ⑥	6.26	기씨마한 ⑥
6.17	기조(조선) ⑦		

단군과 기조는 (조선)을 괄호로 묶어 제목을 붙였으며, 인물 본위로 이야기식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기씨마한’의 경우는 나라 이름도 함께 제목으로 삼고 있다. 단군을 정통에 포함시켰지만 1/2회만 기술된 반면, 기자는 8회나 연재되어 단군보다 기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 중심의 3한 정통론으로서, 단군-기자-마한 순으로 전개한다. 단군과 기자는 모두 조선의 시조이지만

처음에 조선빅성이 야미하야 들과 흙구멍에서 거처하야 나무 열미만 싸먹고 살더니 단군의 가라치심을 밧아 집짓고 밥먹을 줄은 알앗스나 지식이 업고 도리를 알지 못하야 일기 야만에 지나지 못하더니 기조게서 가라치심을 넘어 신하가 인군에게 충성함과 조식이 부모에게 효도함을 알아 동방례의지국이라는 아람다운 일홈을 얻으니..(1907.6.11.)

라 하여, 단군의 가르침은 주거, 음식과 관련되어 설명된 반면 기자의 가르침은 도리 등 성리학적 가르침 및 유교 문명과 연관되어 중요시 되고 있다. 즉 기자로 인해 동방례의지국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단군 시대는 야만이었으며, 기자 시대는 ‘유교’라는 문명화 과정이라 설명하는 것이다. 즉 독자적 문명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도표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의 종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사상(독자적 문명국)은 특히 ‘기씨마한’ 부분에서 강조되는데, 증원에 조공하였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 반면, ‘임나국 사름이 산호 가지를 조공하드’ ‘원년에 임나국 사름 연화스들을 봉하야 임나국 인군을 삼다’²¹⁾처럼 임나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역사의식 확대나 총 문화역량의 심화·발전이 목적이 라기보다, 자주적 문명국가 수립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요청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역사를 이용한다는 계몽적 사학의 수준²²⁾이라 할 수 있다.

6월 26일 ‘기씨마한’ 6회를 연재한 후, 7월 23일부터 「국민의 수지」를 시작한다.

21) 1907.6.22

22) 박광용,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론』6, 1980, 288쪽.

일 자	제 목	일 자	제 목
1907.7. 23	국민의 수지(頴知): 국가와 정부의 관계	1907.8.7	독립국의 주주민 ②
7. 24	군주와 정부의 권한 ①	8. 8	독립국의 주주민 ③
7. 25	군주와 정부의 권한②	8. 9	독립국의 주주민 ④
7. 26	국민과 정부의 관계	8.10	국가의 종류 ① 군주국
7. 27	군주의 주권 ①	8.11	국가의 종류 ② 립헌국
7. 28	군주의 주권 ②	8.13	국가의 종류 ③ 련방국 외
7. 31	국민의 의무 ①	8.14	국가의 종류 ④ 정합국 외
8. 1	국민의 의무 ②	8.15	국가의 종류 ⑤ 보호국 외
8. 2	국민의 의무 ③, 국민의 권리	8.16	국가의 종류 ⑥ 부용국
8. 6	독립국의 주주민 ①		

국민국가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해 탐색하면서, 국가와 정부, 국민과의 관계 뿐 아니라 독립국의 주주민이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면서, 국가의 종류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다. 8월 15일자의 보호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보호국이라는 것은 외국에 디혀야 즈기나라의 안전함을 보전하기 위햐야 외교권(교전하는 권) 일부분을 타국(즉 상주권국)에 주고 그 보호에 의비햐야 국권의 발달 되기를 기약코져 하는 가련한 자를 이릅이니라

하면서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처지를 ‘가련하다’고 언급한다.

본국력스²³⁾와 「국민의 수지」의 저자는 박정동으로 추정된다. 앞서도 지적한 바, 이 시기 학문론에 관여한 기자는 박정동, 이인직, 이해조 세 사람밖에 없는데,²³⁾ 이 중 ‘역사서’를 저술한 사람은 박정동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정동은 이 당시의 여러가지 교과서 편찬에 종사한 바,²⁴⁾ 다음

23) 『社告』, 1907년 5월 19일

24) 물리학도 ‘박정동의 학술’이라는 언급이 제1회 연재분 소개의 글 말미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물리학에 데일 고명헌 박정동씨의 학술이오니 자세

장에서 다룰 『신찬 가정학』 교과서를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초등 대동역사』(同文社,1909), 『초등 수신』(同文社,1909),²⁵⁾ 『초등 본국지리』, 『改正 新理化學』 등 전방위적으로 교재 편찬에 기여한 사람이다. 관립 소학교원으로서 1906년에는 이준·전덕기와 함께 ‘국민교육회’를 창설한 바 있으며, 1908년에는 「교남교육회」를 발기하여 창립(3월 15일)하기도 하였다.

『초등 대동역사』와 『초등 수신』은 ‘학부 검정’ 저서이다. 『초등 대동역사』는 기본적으로 『제국신문』본의 본국력스²⁵⁾과 내용이 유사하다. 『동국사략』 『해동역사』 『대한강역고』 『동사집략』 등 당대 대부분의 역사서가 편년체에 한문 문체인 반면, 여기서는 국한문 혼용체이다 『제국신문』과 같이 인물 본위의 이야기 식을 채택하고 있다. 종래의 역사서들과 달리 편년체를 지양하고 사건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왕조 중심에서 탈피하여 민족적 사건 중심, 역사상의 위인 영웅 등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영웅·위인 등을 초점화 한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적 부분으로 읽을 수 있다. 저자의 민족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군보다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점, 단군-기자-마한 정통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국신문』본과 동일하다. 초등학교 교재여서 『제국신문』에 비해 더 쉽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림을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자주를 천하에 포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인천·원산의 개항으로 조선의 독립 자주권이 세계만방에 공인되었다고 서술하는 부분 등은 일제의 학부 검정에 의해 통과된 몇 안 되는 교재라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09년에 이르면 검정·인가라는 절차에 의해 편찬된 역사서들²⁶⁾은 거의 친일적 사관을

히 보시고 김히 연구하기 바라오”(1907.5.20.)

25) 내용을 보면, 부모 형제 자매 조손 숙질 봉우 친척 가정 스승 사회 직업 예의 효 청렴 정직 등 삼강오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동양적인 문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문화는 동양적인 것이 우수하다는 믿을 때문이다. 서재복, 「한말 개화기 초등용 교과서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3권제2호, 2005, 34쪽

26) 역사교재는 16종이 출원되어 6종만이 검정에 통과하였으며, 검정에 따라 통과한 국사교과서는 모두 사립초등용이었다. 양정현, 「개화기 역사교과서의 당대 인식」,

드러낸다. 하지만 아직 『제국신문』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보호국 체제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자주독립국을 지향한다. 동일 필자의 것임에도 1907년과 1909년은 이처럼 편차가 있다. 이러한 편차는 1907년의 역사학과, 1908년의 가정학·윤리학의 편차와도 연관된다.

초등학교 교재여서 당대 타 역사서에 비해 역사서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영웅 중심 사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야기식은 아래에서 다룰 ‘가정학’과 ‘윤리학’이 문답체를 채택한 것과 동일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민도가 낮은 일반 대중들을 독자 대상으로 삼아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야기식’이라는 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국민계몽을 시급하게 생각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독자전략이었다.

기자조선에 대한 도입은 실학자들의 역사서에서부터 비롯되는 바, 19세기에 이르면 ‘기자조선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었다.’²⁷⁾ 『제국신문』의 「본국력스」 또한 이러한 당대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자 중심, 정전제 도입, 八條敎로 인한 풍속의 純美 강조, 五倫의 八條 편입 등은 실학정신을 계승한 부분이라 평가된 바 있다. 실학자들은 經史一體를 분리하여 역사학을 독립분야로 위치시켰고, 한국사를 객관화·실증화 하기 시작했다고 연구되었다. 또한 체계화·계통화 하여 민족사의 상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진폭을 크게 넓혔다고 평가되었다. 사대주의적 사관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²⁸⁾ 실학에서 싹튼 자존적 국가의식은 개화사상으로 그 맥락이 계승되었다.²⁹⁾ 개화사상의 역사의식은 부국강병, 근대주의, 보편적 세계사, 우승열패, 문명창출

『내일을 여는 역사』, 35, 2009, 164쪽.

27) 박광용,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론』6, 1980, 251-296쪽.; 박형택 외, 『한국유학사상논집 60: 실학사상』, 불함문화사, 1996.; 조성을 외, 『실학과 문화예술』, 경기문화재단, 2004. 참조.

28) 조성을, 『조선 후기 사학사연구』, 한울, 2004.; 한영우 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세실학강좌 1-3』, 혜안 2003, 참조.

29) 박결순, 「한말 학부의 편찬 사서와 그 역사인식」, 『충북사학』 제5집, 64-68쪽

주체로서의 국가, 몽매한 민중 등으로 정리된다.³⁰⁾ 실학 이래 싹 튼 자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 자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제기, 대조선 개국기원론의 재등장, 기자시조론의 강화 등은 실학적 방법론 및 역사론을 계승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국력스 및 「국민의 수지」는 민족주의 사학의 일면을 확인³¹⁾시켜 준다.

본국력스는 전체적으로 실학적 방법론을 계승하는 한편, 19세기까지 남아 있던 중국 중심의 유교 문명론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속국도 일본의 보호국도 거부하면서 독자적 문명국을 지향하고 있었다. 동시기 『대한매일신보』의 신채호가 『讀史新論』³²⁾과 『대동역사』를 통해 기자보다 단군 중심의 역사관을 펴면서 새로운 독자적 문명국을 희망하려 하였다면,³³⁾ 『제국신문』은 기자 중심의 역사관을 통해 새로운 문명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신문』이 실학을 계승하면서도 변용한 부분이며, 동시기 『대한매일신보』 및 신채호와도 다른 점이다.

하지만 사대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종래의 화이관에서 완전히 탈피했던 것은 아니며, 유교 중심의 문명사관을 극복했던 것도 아니었다. 중국사에 부응하는 독자적 민족주의 사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³⁴⁾

2.2. 가정학: ‘제도로서의 주부’학에서 ‘에티켓의 제도화’로

물리학」, 「본국력스」 다음으로 연재된 것은 가정학」이다. 근대적 국

30) 정창렬, 「개화사상의 역사인식」, 『개항 전후와 한말의 역사인식』, 국사편찬위원회, 1987, 17-22쪽.

31) 박결순, 「한말 학부의 편찬 사서와 그 역사인식」, 『충북사학』 제5집, 1992, 61-106쪽.

32) 『대한매일신보』에 1908.8.27.-9.15(1차)/10.29-12.13(2차) 동안 연재하였으며, ‘미완’이라 되어 있다.

33) 김종복·박준형, 『대동역사』(고대사)를 통해 본 신채호의 초기 역사학, 『동방학지』 162집, 2013, 283-389쪽.; 김수자, 「신채호의 『독사신문』의 구성과 민족사의 재구성」, 『동양고전연구』 36집, 2009, 204-228쪽.

34) 조성을, 『조선 후기 사학사연구』, 한울, 2004.; 한영우 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가는 유능한 소수의 인재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때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그 어린이 교육을 담당할 여성(모성)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기획하고 있었다. 당시 여성에 대한 담론은 필자의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여성젠더의 여성담론이 모성담론 및 가족담론 형태의 것으로서 여성 개인의 권리·자유에 우선성을 두는 체제변혁적인 것이었다면, 남성젠더의 여성담론은 대체로 미래 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교양을 발명하고 ‘제도로서의 주부’를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모성 환원을 꾀는 동시에, 국가담론 및 가족담론에 여성을 종속시키는 형태의 것이었다.³⁵⁾

아동학, 여성학이 발명되기 이전 근대초기는 근대 국가의 소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해 주목하였다. 근대국가의 토대로서 가정은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일궈낼 지름길로 여겨졌다. 근대국가의 진정한 토대가 되기 위한 가정의 전제조건은 주부였고, 주부는 국가로부터 어린이 교육과 제반 가사를 관리를 이양받은 형태로서, 일종의 ‘제도’로 기능하고 있었다. ‘제도로서의 주부’³⁶⁾에 대한 제반 내용들이 바로 가정학이라 할 수 있다. 가정(家政)이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학은 여성이 가정을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한 학문이다.

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1906년 8월 「가정잡지」가 창간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가정학’이란 분과학문적 인식이 드러난 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 『조양보』와 『호남학보』에서였다. 가정학은 근대교육 제도 하의 과목으로 채택되어 교과서로도 확산되었는데, 당시 유통되던 가정학 교과서로는 현공립의 『한문가정학』(1907) 『신편 가정학』(1907) 『신정 가정학』(1913) 외에 박정동의 『신찬 가정학』 등이 있다. 가정학의 유통·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35)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5-51쪽 참조.

36)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5-51쪽 참조.

1906년 『조양보』 연재

1907년 『한문 가정학(현공립)』 『신편 가정학(현공립)』 『(국문) 신찬 가정학(박정동)』

1907년- 1908년 『제국신문』 연재(박정동)

1908년 『호남학보』 연재(이기)

1913년 『신정 가정학』(현공립)³⁷⁾

하지만 위 저술 가운데 가장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제국신문』본 가정학은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바 없다. 『조양보』는 5호부터 7회에 걸쳐, “婦人宜讀 부인이 맞당이 일글/가정학”이라는 설명으로 연재한 바 있고, 『호남학보』도 1908년 4월 창간호부터 이기가 9회에 걸쳐 가정학설을 연재한다. 하지만 이는 『제국신문』의 가정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연재가 시작된 것이며, 두 잡지 모두 내용의 범위 및 전문성에서 『제국신문』본을 따르지 못한다. 또 『제국신문』본은 교과서나 잡지의 논설체와 달리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 선택이 이루어져 있다. 『조양보』는 한글체이나 번역투에다 오탈자가 많고, 『신정 가정학』은 국한문 혼용체이다. 『제국신문』본은 국문체이며,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 장절 표시는 제1장만 표기되어 있고 2장부터는 표기가 없다. 또 1장과 2장은 ‘어린 아히 기르는 법’ ‘늙은이 봉양법’ 등으로 제목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제목 내용이 표기되지 않은 채 곧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매 일자의 제목은 필자가 처음 제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다. 글 중간에 내용이 바뀌기도 하지만, 대체로 매호마다 내용이 다르다.

37) 가정학과 관련하여서는 전미경, 「1900-1910년대 가정 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교육학회지』 17권 1호, 2005. 131-151쪽.;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변역과 유통 사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호, 2013, 151-171쪽이 있다.

<『제국신문』본 「가정학」의 목차 및 내용>

대단원	소단원	내 용	대단원	소단원	내 용		
(총본)		(없음)			응급조치		
대일장 : 어린 아희 기르느 법	소아 교육	태육(胎育)	비복	비복의 스무	부상자 구호		
		잉태한 부인의 의복			의원의 자질		
		잉태한 부인의 운동			투약		
		티모와 것			병자의 거처		
		티모의 위생			병자의 격리		
		티모의 병으로 유모를 돌			병인의 락		
		경우			병인의 불한법		
		유모의 연령			병인의 음식섭취		
		것			비복 부리기		
		먹다 남은 우유			비복부리는 법		
	규칙 가라치기	비복 고용기한					
	아희의 의복	비복 스무 눈오기					
	위생과 덕육과의 관계	비복의 교육법					
	운동의 필요함	비복의 상과 벌					
	소아의 거처	비복 부리는 시간					
	종두	비복의 삶의 쾌락					
	역질	비복의 인격					
	소아의 동정(動靜)과 유희	비복 잘 부리는 법					
	소아의 외출	악습 교정 법					
	소아의 목욕	비복의 행동 교육					
	보모, 유치원	비복의 언어 교육					
	가정 교육	가정교육 잘 하는 법	가정 관습	가정 관습	인서(仁恕)		
		적극의 가치			훈계		
		소아의 현물초와 가정교육의			교제		
		관계			아녀의 언행		
교육에서 칭찬의 유용성		손님 접대					
덕육		음식 먹을 적 규칙					
가정교육의 실행방법		즈너 풍속 교육					
유치원 후의 교육		부인 성형					
늙은이 봉양법		로인의			가정	집안 위생	정결, 청결
		의식주					가정의 규칙과 질서
	로인과 소아의 봉양의 차이	집안의 경돈적인 사람					
	로인 처소의 기구 물품	의 직업을 논음					
	로인의	일즉 일어나기					
	보양 방법	일광과 위생, 건강					
	로인 정신 이양(頤養)의 필요	정리 정돈					
	로인 목욕법	정신 건강					
	로인의 간호	폭력(暴厲) 경계					
	질병	질병					
전염병	전염병						

교제	방법 에 티 켓	아동 교제교육	재년	衣	채소와 육종
		심방법			숙류
		전송법			과일
		손님에 따라 접대			계란
		초대하는 법			식단법
		깃 대접 법			지방 섭취
		잔치 음식 대접			물의 종류와 위생
		접대 행동거지			의복재료
		과일 차 먹는 법			재봉
		초대받은 자의 의복 등 예절			의복과 혈액순환
총론	食	서신 통신법	住	의복의 보존	
		기부의 물품		가옥과 건강	
		위생의 필요		공기의 방향과 지질	
		주거, 의복, 운동		가옥의 구별	
		광선		가옥의 구조	
		공기와 호흡		서양가옥 제도	
		공기		가옥의 목구(木具)	
		토지와 질병의 관계		천재지변	
		집안에서 운동		불의 종류	
		의복과 피부 건강		화재	
위생	食	물의 중요함	재정	중재	
		연수, 경수		도적의 파난	
		천수, 해수		검략	
		물의 이익됨		경제상 주의할 일	
		물과 건강, 질병의 관계		경제 태도	
		비등, 빙결		시간과 재정의 관계	
		술		재정의 출납	
		술		저축	
		질병과 음식		저축방법	
		식물의 외관과 음식		저축의 효익방법	
식물과 건강	물품구매				
음식 먹는 시간	즉전의 이익				

1907년 12월 11일 첫 회가 시작되어 1908년 6월 19일까지 무려 142회가 연재된다. 총론은 없으며, 1-28회까지는 태교, 태육, 소아교육, 어린이 질병 구완, 가정교육, 29회-36회는 노인 봉양, 37회-47회는 질병, 48회

-62회는 비복의 다스림, 63회-89회는 교제와 관련한 제반 에티켓, 90회-127회는 의식주와 관련한 각종 위생 관련, 128회-132회는 각종 재난대책, 133회-142회는 재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번역된 가정학 교과서들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영역에 있어서도 방대하다. 체제면에서는 단행본들보다 영성하나, 내용은 훨씬 방대하다. 특히 위생 부분에서 의식주 중 ‘의’와 ‘주’에 비해 ‘식’이 훨씬 강조되어 있으며, ‘교제’ 부분에서 에티켓이 강조된 것이 다른 이본들과 다른 점이다. ‘식’이 강조된 것은 섭생과 건강, 체력이 곧 근대를 만드는 핵심이라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에티켓이 강조된 것은 이를 ‘근대화’ 및 ‘문명’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위생의 ‘식’ 부분에서도 먹는 방법과 관련한 에티켓이 소개된다는 점에서 총론을 빼고 가정습관 부분에서 ‘에티켓’을 강조하는 것이 『제국신문』본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박정동으로 추정된다. 1907년 5월 17일자 사고를 보면 물리학과 소설은 박정동, 리인직, 리해조 삼씨가 담임 더술³⁸⁾한다고 되어 있다. 박정동은 1907년 9월 右文館에서 펴낸 『신찬 가정학』³⁹⁾의 번역자이다. 『제국신문』본은 일본의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 1854-1936)가 쓴 『新選 家政學』(1900)을 번역한 것으로⁴⁰⁾ 김우균, 이풍호 두 사람이 교열한 것으로 적혀 있다.⁴¹⁾ 어린아해 교양, 가정교육, 늙은이 봉양, 병보음, 교제, 피난, 하인 부림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96쪽), 『제국신문』본에 비해 해당 내용도 축약되어 있다. 순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국신문』본의 번역 역시 당시의 기자 박정동으로 보아 무방할 듯하다. 현공립도 시모다 우타코의 저서를 번역한 바 『신정 가정학』의 구성과 체제를 변경하였다.⁴²⁾ 시모다의 저서가 상권에 총론 및 가정 위생, 가정 경제 등을

38) 「社告」 참조.

39) 발행인은 鄭喜鎭, 발매소는 중앙서관, 대동서시, 회동서관, 광학서포 4곳으로 표시되어 있다.

40) 시모다의 책을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 오여륜이 번역한 『한문 가정학』을 저본으로 중역한 것이다.

41) 『신찬 가정학』, 1쪽.

전면 배치한 데 비해, 현공립은 ‘가인의 감독’을 상권의 맨 앞에 배치하고, 위생, 일가의 경제 등은 하권의 맨 뒤로 배치하였다. 반면 박정동 본은 시모다의 총론은 모두 삭제하고 위에 소개한 것같이 7장으로 축약하여 놓았다. 여성의 가사노동력 중심으로 재배치한 것으로서, 주부의 ‘의무’를 강조한 반면, ‘권리’는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다.⁴³⁾

<『신찬 가정학』(박정동, 1907.9)의 목차 및 내용>

대단원	내 용	대단원	내 용	
제1장 어린 아해 교양	태중에서 교육	제5장 교제	병구원	
	것먹여 길음		방문	
	어린 아히의 의복과 음식과 거처		덕객	
	어린 아히의 니 늘 썩		향응	
	종두함		서신	
제2장 가정 교육	가정교육의 필요	제6장 피난	정표	
	가정교육의 목적		화지	
제 3 장 늙은이 봉양	가정교육의 방법		제7장 하인을 부림	종직
	로인 동정과 봉양			진직
제4장 병보음	로인의 병환		제7장 하인을 부림	수회
	병남	적환		
	주장하야 치료하는 의원	하인을 역사 시킴		
	병실		하인을 취함	

42) 당시 가정학 교재의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6-29쪽.;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참조.

43)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7쪽.

반면 『제국신문』본은 ‘어린아해 기르는 법’으로 시작되며, 총론은 삭제되어 있다. 『신찬 가정학』이 끝나는 이후의 내용, 즉 각종 교제의 방법으로서의 에티켓과 위생의 대상으로서의 의식주, 재정과 시간 문제 등이 덧붙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동일 저자의 두 이본을 비교해 보자. 우선 서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찬 가정학』>

제1장 어린아해 교양

아해를 길으는 법은 산에 쫓나무 심으는 것과 못하야 배양하는 법을 적당케 하면 변변치 못한 화초라도 쏘흔 금병에 채화보담 화려홀지오 배양을 적당히 하지 못홀지면 비록 향기 만흔 난초라도 말나서 이울지니라 사람도 쏘흔 이와 같하야 자식을 나움에 약하고 둔흙은 그 근원이 태중에서 생기며 쏘흔 어릴 쎄 위싱에 힘쓰지 아니흙이니 엇지 일평생에 한이 되지 아니헝리오 만일 건강흔 아히를 낫코자 홀진디 반다시 강건하고 어진 어미를 구홀지라 이럼으로 세상에 영웅호걸이라도 어렸슬 쎄에 건강하고 어진 모친이 보호치 아니헝앗스면 엇지 큰 공을 세웁스리오(1907.9)

<『제국신문』본>

테일장 어린 아히 기르는 법

문 아히 기르는 법이 엇더호노

답 용렬흔 나무와 범상흔 풀이라도 썩로 물 주고 썩로 복도도아 그 성질에 맞당케 하야 쥘면 쏘흔 성하고 으롭다와서 금병에 맞들어 쫓일만 헝려니와 그러치 안이하야 물노 안이 주고 복도 아니 도도와 등한이 내버려두면 향기 러운 난초와 속은 오동이라도 입이 이을고 줄기가 웅종흙과 일반으로 사름도 허약하고 어리석은 병이 틈중에서나 혹 어려서 위싱을 주의치 안이흙에 인연 하야 일싱에 읍감이 되나니라

문 건강흔 아히를 엇으라 홀진딘 무슨 방법으로 호노노

답 그 어머니되는 부인이 유순하고 지혜로와 정성시럽고 부지런하면 허약

흔 아히가 업슬지니라.(중략)..부인이 아히 기르는 공덕이 장부가 세상 건지는 공보다 더욱 크다 헝니라(1907.12.11.)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나, 단행본의 경우 강건하고 어진 어미를 영웅호걸과 연결시키면서 국민국가의 동량으로서의 어린이와 모성을 묶어 강조하는 반면, 『제국신문』본은 육아와 관련지으면서 부인의 성격 및 성질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국민국가 동량으로서의 영웅 등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즉 『제국신문』본이 좀더 순수한 육아법에 가깝다. 『제국신문』본에서 부인의 육아 공덕이 장부의 공보다 크다는 언급도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강조하기보다 육아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기상 6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즉 1907년 중반까지만 해도(8월 인쇄이므로 원고는 1907년 초반에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미 1907년 말에 이르면 단순 육아법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모성과 정치적 연관관계가 삭제되고 ‘가정 내’에서의 ‘육아’로 의미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실학에서 말하는 ‘실천’이 가정 내적으로 축소화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가정’이 1907년 이후에는 더 이상 패러다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즉 사회적 장으로서의 의미망을 삭제당한 채, ‘주부’의 ‘일터’로 포지셔닝 되고 있다.

『신찬 가정학』→『제국신문』본의 이행은 ‘주부’라는 의무를 지닌 ‘국민’으로부터, 에티켓을 지녀야 하는 ‘사적 개인’의 위치로 이동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07년의 역사적 위치가 확인되는 부분이다. 시모다의 원본 및 타 가정학 교과서들과의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도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즉 ‘에티켓의 제도화’를 꾀하는 부분이다. 시모다 우타코의 ‘교제’장이 방문, 대객, 향응, 서신, 음물(音物)의 5개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현공령의 『한문 가정과』과 『신정 가정학』의 ‘교제’장은 방문, 향연, 서신, 기증의 4개 소단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동일 저자인 박정동의 『신찬 가정학』은 방문, 대객, 향응, 서신까지는 앞의 다른 책들과 동일하

고 ‘물품’ 또는 ‘음물’ 대신 ‘정표’라는 제목의 5개 장으로 확장되어 있다. 음물(いんもつ)은 선물·뇌물을 뜻한다. 현공립본에서는 ‘선물’이 삭제되어 있고, 『신찬가정학』에서는 ‘정표’로 변형되어 있다. 선물과 정표는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다. 선물이 일반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면, 정표는 그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정을 나눈다’의 의미망이 초점화 된다. 즉 감성적 의미망이 강조되어 있고, 이때의 ‘감성적’ 주체는 이미 ‘국가’영역으로부터 일정정도 무관해진 ‘개인’들이다. 이 역시 1907년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시킨다.

『제국신문』본 「가정학」은 위와 달리 아동 교제 교육, 심방법, 전송법, 대객, 초대법, 손님 접대법, 잔치 음식 접대법, 접대에서의 행동거지, 과일·차 먹는 법, 초대받은 자의 의복·예절, 서신 통신법, 기부의 물품 등 12개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항목 수가 3배 정도로 늘어나 있으며, ‘선물’ ‘정표’에서 ‘기부물품’으로 단어가 바뀌어 있다. 기부 물품은 정표보다 선물의 의미에 더 가깝긴 하지만, 기부가 댓가 없이 주는 것이란 의미에 자선의 뜻이 부가되어 있다면, 선물에는 자선의 의미도 댓가의 의미도 표면적으로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보다 더욱 중시된 것은 아래와 같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① 음식을 먹을 썩의 규칙이 가정에 관계가 크니 즈녀가 음식 먹을 썩 형위가 부정하야 여러 사람에 압해서 먹을 것을 탐하야 실험이 업슴은 크히 가정홀 뿐만 아니라 타인의 깃거온 지취 까지 사라지게 하나니...(중략)...손을 길게 펴서 타인의 압해 잇는 물건을 집음은 대단히 실례니...(중략)...손에 더러운 것이 못연드라도 의복이나 벽상에 문지르지 말 일...(중략)...입속으로 말을 중얼거리지 말 일⁴⁴⁾

② 사람 압해서 손톱 발톱을 깎는 일, 얼굴에 썩가 잇도록 세슈치 안이

44) 1908.3.15.

하는 일, 입과 코를 공연히 흘죽거리며 썩썩거리는 일, 손등으로 눈물이나 코물을 쓰기쓰기 써서 바리는 일, 신을 썩썩 끌고 손의 압호로 단기는 일⁴⁵⁾

③ 과실은 식차나 혹 식도로 절타하야 먹되 손가락 썩해 못엇거던 물에 씻고 슈건으로 썩으며 녀즈는 식상 위에서 양츄물을 물거나 이썩시기를 집어 이를 썩시지 말며⁴⁶⁾

④ 셔츠의 법식은 실례치 안이홀지니 봉투에 너어 우테로 보되는 자는 우표를 봉투 거죽 왼편 여기에 붓치고셔신은 지극히 비밀하고 중요한 것인 즉 지친간에 령슈홀지라도 제어 보는 일이 불가하야 친견 이즈가 잇스면 더욱 신중홀 것이오⁴⁷⁾

위의 예문들은 사회생활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양식, 즉 에티켓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바, 어떠한 행동은 ‘상스러운, 야만’으로 규정하면서 수치와 혐오의 감성으로 호명한다. 그 과정에서 불쾌감과 두려움의 경계도 작동된다. 고대 프랑스어 estquer(붙이다)에서 유래한 에티켓은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의 뜻에서 표찰의 뜻으로, 다시 ‘예법’을 가리키는 말로 변하였다. 에티켓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습이나 몸가짐 등 일반적 예의 뿐 아니라 이보다 고도의 규칙·예법·의례 등 신사·숙녀가 지켜야 할 범절들로서 요구도(要求度)가 높은 것까지 포함한다. 에티켓에는 ‘사회’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나와 남의 경계가 ‘사회’라는 장 속에 의미화 되어 있다. 이로써 1907년 당시 ‘사회’라는 개념이 이미 확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에티켓은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이어서, 위의 예문에서도 확인되는 바 “**하지 말 일” 즉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로 전달하고 있다. 내면화 하여 지켜야 할 질서라

45) 1908.3.14.

46) 1908.4.10.

47) 1908.4.11.

는 점에서 일종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사회의 요구 및 금지 기준을 정해주고, 생각 · 느낌 · 행동을 통제하고 규율화 하는 것이다. 즉 에티켓은 문명화, 세련화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본능적 충동의 억압과정이기도 하다. 얻은 것은 ‘세련된 행동양식’이요, 잃은 것은 ‘자연스런 삶’인 것이다. 즉 문명화 된 세계의 삶은 정신에게는 ‘가혹한 삶’이라는 점에서 ‘문명화의 역설’⁴⁸⁾이 발생한다. 예문 ④는 에티켓이 프라이버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일러준다. 서찰 예법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① ② ③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서구조가 이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스러움 · 야만 · 불성실 · 부정직 / 교양적 · 문명 · 성실 · 정직으로 정서구조의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다. 상이한 사회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한 장치로서, 에티켓은 위와 같은 이분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는 후자와 비교해 사회적 차별의 장에 들어 서게 된다. “입과 코를 공연히 흘죽거리며 썩썩거리는 일, 손등으로 눈물이나 코물을 쓰그쓰그 써서 바리는 일”은 특정한 인간의 특수한 성격적 행동일 수 있음에도 이를 ‘사회적 대립’의 시선으로 ‘가치화’ 하는 것이다.

통합 장치로서의 에티켓은 식민/피식민 관계(국가 범주)를 환기한다기보다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정 또는 개인 범주로 축소된)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1907년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시킨다. 에티켓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정학」의 변화는 식민/피식민의 지점을 은폐하고 개인 또는 가정이라는 ‘사회’ 범주에 안착시키는 결과를 자아낸다. 즉 구한말에서 에티켓은 친일로의 이동을 가속화 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는 실학정신의 협애화 · 순응화의 방향이다. 근대초기 역사 과정에서 ‘발견’된 실학이라는 17-19세기의 정신현상은 처음에는 왕조의 낡은 체제와 문물제도, 풍속 전반의 변혁을 서두르면서 현실적용의 유효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었으나,⁴⁹⁾ 가정학 단계에 이르러 가정 내적 의미, 또는 정

48) 노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과정 1,2』, 한길사, 1996,1999, 참조

49)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21세기에 실학을 읽는다』, 한길사, 2014, 15쪽.

치적 의미가 배제된 ‘사회 관계’에서의 에티켓이라는 차원으로 협애화 되고 축소되었다.

2.3. 윤리학: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유’된 응용과학으로서의 ‘윤리학’

윤리학은 1908년 6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4달 간 100여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제1장 ‘윤리학의 석의 및 범위’로부터 시작하여, 제3장 ‘자기의 관념’, 제6장 ‘덕성 함양의 대요’, 제7장-9장 가족윤리로 되어 있으며, 10장-21장까지는 사회윤리, 22장-32장까지는 국가윤리, 33장-50장까지는 사상윤리로 되어 있다. 4장과 5장, 9장은 누락되어 있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해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조는 『기호홍학회월보』에 윤리학이란 글을 5호(1908.12.15.)부터 12호(1909.7.25.)까지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국신문』에는 이보다 앞서 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신문』과 윤리학이 이해조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국신문』본은 『기호홍학회월보』와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① <제국신문본>

문 륜리학은 무엇하는 학문이뇨

답 륜리학은 인류의 리치를 궁구하야 그 실행하는 방법을 구하는 학문이니라

문 물리학과 륜리학을 서로 비교하면 그 차별이 엇더하뇨

답 무릇 물리학은 논리와 응용 두 가지로 난호아서 논리하는 차는 뵤인 리치를 밑우워 실스를 베풀며 또 이것을 인하야 아지 못하던 것을 발명하기로 위주하되 륜리학의 성질은 그러치 안이하야 다만 실답게 발바 힘흠을 귀히 녜여 학리를 발명흠을 위하지 안나니 이논곳 륜리학이 물리학보다 다른 소이니라(1907.6.20.)

② <『기호홍학회월보』본>

第1章 緒論 (釋義 及 範圍)

倫理學은 人倫의 眞理를 究호야 實行의 方法을 求호는 바이라 物理學과 倫理學으로 互相比較호야 基差別을 試觀호면 足히 其眞理를 知호되 로다 夫 物理學은 論理와 應用의 兩種을 分호는 者이니 論理라 호는 자는 應用의 與否를 不호호고 다만 學理를 研究호야 天則을 發明호호으로 目的을 삼고 應用이라 호는 者는 虛理를 推호야 實事에 施호며 且 此를 因호야 未知호는 法을 發明호기로 爲主호호이니 倫理學을 論理와 應用 兩科에 可分與否에 至호야는 異論이 雖多나 然이나 論理 倫理學을 主張호야 一科로 特分기 不能호는 者이니 何則고 倫理學의 性質은 實踐을 貴호호야 論理할 時에 間或 鉤深索隱호호有호니 然이나 其 目的은 學理發明을 호호아 니오 躬行實踐호호야 社會의 發達을 補助호호에 在호니 是는 卽 倫理學이 實踐호는 科學이 되야 物理學 等으로 相異호는 所以니라⁵⁰⁾

우선 문답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문답체는 서술체에 비해 글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켜 좁은 물론, 이해를 훨씬 더 쉽게 도모한다는 점에서 대중적이다. 서(논)술체에 비교해 볼 때 상호주체성의 파트너십을 도모한다. 서(논)술체가 글쓴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친다면, 문답체는 질문-답변하는 양방을 글쓰기 또는 말하기의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이어서, 상호주체성을 강조해 줄 뿐 아니라 문-답의 양 주체는 적절하게 질문하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려 애쓴다는 점에서 파트너십을 구가한다.⁵¹⁾ 국문체를 선택하여 하층들도

50) 『기호홍학회월보』, 제5호, 21-22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倫理學은 人倫道德의 理를 究め, 且つ之を 實行すべき 方法を 研究する 學なり. 物理學にては, 専ら 學理を 研究するものと, 又其の 學理の 應用を 主として 研究するものとあり. されど 倫理學は, 其の 性質 實踐的のものにして 時に 深く 學理の 研究に入る ことなきに ならずと 雖も 其の 目的は 學理を 發見せんが 爲めに ならずして, 實行 方法を 發見せんが 爲めなり. 故に 倫理學は 實踐の 科學にして, 倫理の 科學とは 異れり. 元良勇次郎, 『中等教育 元良氏 倫理書』, 成美堂, 1902, 1-2쪽.

쉽게 읽고자 도모했던 『제국신문』은 윤리학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앞의 역사학, 가정학과 마찬가지로 문답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기호홍학회월보』처럼 한자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는 『제국신문』의 전략을 이해조가 수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해조는 물리학과는 전혀 다른 과학으로 윤리학을 규정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물리학이 논리의 학문이라면 윤리학은 응용의 과학(학문)이고 헛된 학문이 아니라 궁행실천하여 사회의 발달을 보조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즉 이해조는 윤리학이 물리학과는 다르지만 과학적인 학문이며, 그 특징은 실천을 통해 사회의 발달을 돕는 학문임을 강조한다.

이해조의 「윤리학」은 모토라 유우지로(元良勇次郎)의 『倫理講話』를 축약한 『中等教育 元良氏 倫理書』(成美堂, 1902, 1906)를 번역한 것인데,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이해조가 원저자의 글에 첨가한 부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해조의 번역은 원문과 비교해 차이가 다소 있다. 1906년 본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윤리’장의 경우 원문보다 2개의 장이 줄어 들었는데, 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오락론을 1개의 장으로 축약하고, 품격론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국가윤리’장은 그대로이나, ‘사상윤리’장에서는 ‘生存競爭と 德義との 關係’ ‘自由 及び其の 制限’장은 삭제되었으며, ‘思想と 實行との 關係’는 ‘知와 實行과의 關係’로 수정되었으며, 욕망론은 원문의 1/4이하로 짧게 처리되었다. 삭제 또는 축약이 의미하는 바는 명약관화 하다. 오락론, 욕망론, 품격론은 당대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생존경쟁과 덕의와의 관계, 자유와 그의 제한 역시 이미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었고 이미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이를 강조함은 이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상과 실행과의 관계’를 ‘지와 실행과의 관계’로 환치한 것은 실학적 기반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행합일 등이 이미 개념화 되어

51) 김복순, 『별학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별건곤』을 중심으로』, 근간, 2장 3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있었고, 실학에서도 지와 실행을 엮어 의미화 했지 사상과 실행으로 의미화 하지 않는 조선 지식계의 풍토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모토라의 원문에 없는,⁵²⁾ ‘倫理學을 論理와 應用 兩科에 可分與否에 至하야는 異論이 雖多나’ 부분이나, 원문과 달리 이해조가 첨가한 부분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倫理學을 論理와 應用 兩科에 可分與否에 至하야는 異論이 雖多나’라는 표현은 이해조가 윤리학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또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무엇보다도 ‘실천’의 과학, 응용과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사구시를 강조했던 실학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근대초기 실사구시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업 또는 성리학적인 고담준론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식의 탐구를 일컫는 개념으로 변용되었다. 이 시기 학술지들이 ‘실업(實業)’을 강조했던 것은 소박한 차원에서의 실학정신의 적용이라 볼 수 있다. 이미 내용적으로 국망 상태에서 고담준론보다는 현실적 유용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터, 윤리학은 ‘실제적인 일에서 올바른을 구하는 학문’의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일은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들, 근대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조의 윤리학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행위의 도덕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개화파의 실사구시 개념은 ‘행위의 도덕적 연관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연구되었으나,⁵³⁾ 이해조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신·구학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학(구교육)의 공허성이었고, 당시 국민주의적 학술⁵⁴⁾은 실사구시·이용후생을 강조했던 실학 정

신을 이어받아 인간 자주의 확립, 기술문명의 개발, 애국심의 고취를 강조했다. 이해조의 윤리학은 실사구시로서의 실천을 ‘사회과학의 발달’으로 이해한 분과학문이었다. 여기서의 윤리란 ‘사회의 발달을 보조하는’ ‘행위의 도덕적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당시 유행하던 ‘수신’과는 다른 의미였다. 수신 개념은 그 개념을 중심 가치로 했던 근대 유교의 쇠퇴와 동계를 그리면서 역사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다면, 윤리학은 전통적인 수신을 근대학문의 방법인 과학주의를 준거로 하여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⁵⁵⁾하고 있다.

윤리학과 관련한 이해조의 사상이 『제국신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국신문』은 그간 여러 방면에서 도외시 당하고 폄하되었으나, 이는 근거 부족한 학계의 편견이었음이 확인된다. 『기호홍학회월보』보다 윤리학에 대해 먼저 분과학문으로 소개를 한 것은 『장학보』(1908.1.1. 창간)와 『대한학회월보』(1908.2.25.)였으나 이들 잡지도 『제국신문』만큼 상세하지는 않았다. 요약적으로 축약해 소개하는데 그쳤을 뿐, 『제국신문』처럼 번역자의 의도를 첨가해 수정을 가하지도, 새로운 의미망으로 변용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이해조의 윤리학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 지와 실행의 관계를 ‘책임’과 ‘윤리’의 문제로 접근한다. 사회윤리와 사상윤리가 줄어든데 반해 국가윤리는 전혀 축소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와 실행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거론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국민국가와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 가족 사회의 일 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윤리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자기의 관념’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으나, ‘개인의 자유’ ‘인권’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민국가의 도구적 개념으로 원용되었다. 또 모토라 유우지로의 일본에서의 ‘자기의 관념’과

52) 모토라 유우지로는 존 듀이, 빌헬름 분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학자로서, 『心理學』(金港堂, 1890), 『倫理學』(小野英之助 共著, 1893) 등의 저술이 있다. 심리학적 기반을 통해 윤리학과 인류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2, 117쪽.

53) 이태훈, 『실학 담론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 전남대 박사논문, 2004, 161-206쪽.

54) 임형택, 『20세기 초 신·구학의 교체와 실학』, 『민족문학사연구』 9권1호, 1996,

5-26쪽.

55) 이행훈, 『1900년대 전후 도덕 개념의 의미장-수신·윤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12호, 2013, 161-196쪽 참조.

식민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의 ‘자기’는 그 내포가 다르다. ‘내용적으로 국망’ 상태의 친일내각 하에서 즉 ‘자기’를 운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자기’ ‘개인’에 대한 강조는 식민화에 대한 저항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식민화 극복의 논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윤리학은 주체의 학문이 아니라 학지의 타자성을 드러낸다.

3. 맺는말

본고에서는 그간 소개·연구된 바 없는 『제국신문』 1907년부터 1909년까지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1907년은 역사적 위치를 변경하는 지점이다. 이 해를 분기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학술적 변화가 시도되었고, 친일/항일의 갈림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발간된 후, 학문론을 대대적으로 연재했던 신문은 없었다. 1907년 5월 17일 지면을 확장하는 등 새롭게 출발한 『제국신문』은 5월 20일부터 학문론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동 시기의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소년 한반도』 『서우』 등이 주로 국가학, 국제공법학, 사회학, 경제학, 법률학, 정치학 등을 다뤘다면, 『제국신문』은 역사학(‘본국력스’ ‘국민의 수지’), 가정학, 윤리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독립신문』이 ‘국가’에 착목하고, 『황성신문』이 ‘동양’을 재해석하여 변통을 이끌어냈으며, 동시대의 『대한매일신보』가 ‘민족’을 발견하였다면, 『제국신문』은 ‘법률과 풍속 개량’을 전제로 한 현실주의적 문명화론을 펴고 있었다. 법률의 공정한 시행과 풍속 개량에 의한 민지개발을 토대로 국권회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서구 문물의 수용만 역설하기보다 수용에 따른 변화로서의 질서나 윤리의 문란에 대해 ‘비판’을 늦추지 않았다.

1907년 이후 신·구학 논쟁 등을 통해 학문 개념의 성격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국신문』의 학문론은 계몽의 관념성을 탈피하고 실천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실학이라는 방법적 틀에 의지해 학문개념의 변용을 시도하

고자 했다.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지향적이며 급진적이었다. 1890년 중반 이후 1900년대 중반까지는 이전의 급진성을 지양하고 현실화 되지만, ‘독립’ 담론보다 ‘동양’에 대한 사유방식 및 ‘변통’을 키워드로 하면서 자기공정(1901.1.31, 2.24)과 동등성을 부각시켰다면, 1907년 이후는 일상생활 및 풍속의 차원으로 급진화하면서 현실주의적으로 변모하거나 순응화 되었다. 실학 정신을 부분적으로 계승하였으나 협애화 되었고, 순응화의 양상을 띠었다. 이는 풍속 개량 중심의 문명론이 지닌 필연적 한계였다.

본국력스’는 ‘단군’이 아닌 ‘기자’ 중심의 독자적 문명론 등 실학적 방법론을 계승하는 한편, 19세기까지 남아 있던 중국 중심의 유교 문명론도 벗어나고 있었다. 자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 자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제기, 대조선 개국기원론의 재등장, 기자시조론의 강화 등은 실학적 방법론 및 역사론을 계승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속국도, 일본의 보호국도 거부하면서 독자적 문명국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대주의 및 종래의 화이관에서 완전히 탈피했던 것은 아니었고, 유교 중심의 문명사관을 완전히 극복했던 것도 아니었다. 즉 중국사에 부응하는 독자적 민족주의 사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동 시기의 타 역사서들과 달리 편년체를 지양하고 사건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왕조 중심에서 탈피해 민족적 사건 중심, 역사상의 위인 영웅 등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야기식’은 민도가 낮은 일반 대중들을 독자 대상으로,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채택된 바, 실학 정신이 반영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해조는 윤리학을 물리학과는 다른 응용과학으로 규정하면서, 헛된 학문이 아니라 공행실천하여 사회의 발달을 보조하는 학문이라고 보았다. 물리학과는 다르지만 과학적인 학문이며, 그 특징은 실천을 통해 사회의 발달을 돕는 학문임을 강조하였다. 근대초기 실사구시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업 또는 성리학적인 고담준론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의 탐구를 일컫는 개념으로 변용되었다. 이 시기 학술지들이 ‘실업(實業)’을 강조했던 것은 소박한 차원에서 실학정신이 적용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국망 상태여서 고담준론보다는 현실적 유용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터, 윤리학은 ‘실제적인 일에서 올바름을 구하는 학문’의 뜻으로 쓰였다. 실제적인 일이란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들, 근대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윤리학이 채택한 문답체는 상호주체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가해 보여 주었지만, 지나친 ‘자기’ ‘개인’에 대한 강조는 식민화에 대한 저항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식민화 극복의 논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윤리학은 주체의 학문이 아니라 학지의 타자성을 드러낸다.

다른 가정학 교과서와 달리 에티켓을 강조한 「가정학」도 실천을 중시하였다. ‘정치개량보다 풍속개량이 급’하다는 『제국신문』의 주장 아래 제시된 것이지만, 실학정신의 협애화·순응화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었다. 가정학은 실학정신에서의 ‘실천’이 가정 내적으로 축소화 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즉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가정’이 1907년 이후에는 더 이상 패러다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즉 사회적 장으로서의 의미망을 삭제당한 채, ‘주부’의 ‘일터’로 포지셔닝 되고 있었다. ‘주부’라는 의무를 지닌 ‘국민’으로부터, 에티켓을 지녀야 하는 ‘사적 개인’의 위치로 이동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정학에서 강조된 에티켓은 식민/피식민 관계(국가 범주)를 환기한다기보다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정 또는 개인 범주로 축소된)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1907년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시킨다. 에티켓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가정학」의 변화는 식민/피식민의 지점을 은폐하고 개인 또는 가정이라는 ‘사회’ 범주에 안착시키는 결과를 자아냈다. 즉 구한말에서 에티켓은 친일로의 이동을 가속화 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는 실학정신의 협애화·순응화의 방향이었다.

근대초기 역사 과정에서 ‘발견’된 실학이라는 17-19세기의 정신현상은 처음에는 왕조의 낡은 체제와 문물제도, 풍속 전반의 변혁을 서두르면서 현실적용의 유효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었으나, 가정학 단계에 이르러

가정 내적 의미, 또는 정치적 의미가 배제된 ‘사회 관계’에서의 에티켓이라는 차원으로 협애화 되고 축소되었다.

『제국신문』은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이 한국민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고, 『황성신문』이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을 때도 을사조약의 책임이 한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부에 힘을 쏟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도 『제국신문』 학문론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더 이상 식민화를 극복할 방법론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지의 타자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개화 또는 반개화의 국가가 문명개화 하는 사이, 이미 개화한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문명화를 가속화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본주의’에 기반한 문명개화라는 동일한 논리에 기대는 한 식민화의 방향을 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1908년 후반 이후의 『제국신문』이 친일적 색채를 점점 더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제국신문』의 학문론은 당대 타 잡지나 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고, 역사학, 가정학, 윤리학이란 분과학문의 ‘선택’은 실학적 변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개량론의 한계가 말해주듯 실학정신의 협애화, 축소화의 갈 길이 틀지워졌다는 점에서 『제국신문』 학문론의 학지는 ‘타자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이 『제국신문』 학문론의 공/과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帝國新聞』(연세대학교 소장본)
 下田歌子, 『家政學』, 博文館, 1893.
 下田歌子, 『新選家政學』, 金港堂書籍株式會社, 1900.
 玄公廉發行, 『漢文家政學』, 日韓圖書印刷株式會社, 1907.
 朴晶東 譯, 『新撰家政學』, 右文館, 1907.
 朴晶東, 『初等 大東歷史』, 同文社, 1909.
 朴晶東, 『初等 修身』, 同文社, 1909.
 玄公廉發行, 『新訂家政學』, 唯一書館, 1913.
 『朝陽報』, 1906.
 元良勇次郎, 『中等教育 元良氏 倫理書』, 成美堂, 1902.
 『少年 韓半島』(1906), 케포이북스, 2009.
 한국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10, 아세아문화사, 1977.
 한국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학술지총서』 1-15, 아세아문화사, 197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역사교과서』 1-6, 20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근대수신교과서』 1-3, 2011.

2. 단행본

구장률, 『근대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케포이북스, 2012.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서영희, 『일제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역시비평사, 2012.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

출판, 2007.

임형택, 『21세기에 실학을 읽는다』, 한길사, 2014.
 정선태, 「근대계몽기 국민 담론과 문명국가의 상상-『태극학보』를 중심으로,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2011.
 최기영,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나리타 류이치 외,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 근대와 젠더 세미나 팀 옮김, 『근대 지의 성립』, 소명출판, 2011.
 기무라 료코, 이은주 옮김, 『주부의 탄생』, 소명출판, 2013.
 노베르트 엘리야스, 『문명화과정 1,2』, 한길사, 1996,1999.
 앙드레 슈미트,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필립 아리에스 · 조르주 뒤비 편집, 『사생활의 역사 3』, 새물결, 2002.
 氏家幹人 外, 『日本近代國家の 成立と ジェンダ-』, 柏書房, 2003.
 堤 彪, 『比較文明論の誕生』, 刀水書房, 1988.

3. 논문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6-29쪽.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17호, 2007, 177-223쪽.
 김중복 · 박준형, 『대동역사(고대사)를 통해 본 신채호의 초기 역사학』, 『동방학지』 162, 2013, 283-389쪽.
 박결순, 「한말 학부의 편찬 사서와 그 역사인식」, 『충북사학』 제5집, 1992, 61-106쪽.
 박광용,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론』6, 1980, 251-296쪽.
 백동현, 「대한제국기 신구학 논쟁의 전개와 그 의의」, 『한국사상사학』 19, 2002, 571-604쪽.
 송민호,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2,

- 이경현, 「『제국신문』 초기 논설에 나타난 ‘학문’의 성격과 ‘동양’ 사유방식」, 『한중인문학연구』 14, 2005, 65-90쪽.
- 이행훈, 「1900년대 전후 도덕 개념의 의미장-수신·윤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12호, 2013, 161-196쪽.
-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유통 사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호, 2013, 151-171쪽.
- 임형택, 「20세기 초 신·구학의 교체와 실학」, 『민족문화사연구』 9권1호, 1996, 5-26쪽.
- 전미경, 「1900-1910년대 가정 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권 1호, 2005, 131-151쪽.
- 정창렬, 「개화사상의 역사인식」, 『개항 전후와 한말의 역사인식』, 국사편찬위원회, 1987.
- 조동걸, 「한말 계몽주의의 구조와 독립운동상의 위치」, 『한국학논총』 11, 1989, 97-140쪽.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Sil-Hak(實學) in The Sciences of 『Jeguksinmun(帝國新聞)』 and The Otherness of Knowledge - After 1907 -

Kim, Boksoon

1907 was a point of historical position. From this year, political, social, cultural, academical change had made. A turnoff of pro/anti Japanese movement had begun.

Since the publishment of newspapers in Korea, no one ever had serialized the sciences largely. 『Jeguksinmun(帝國新聞)』, which made a new beginning on 17th. May, 1907 by extending spaces, published articles of sciences since 20th. May, 1907. 『Jeguksinmun(帝國新聞)』 specially emphasized a history science, domestic science and ethics. The sciences in 『Jeguksinmun(帝國新聞)』 broke away the ideality of enlightenment and extended into practice and tried to transform concept of sciences depending on methodological frame of Sil-Hak(實學). The Keywords were practice and adaptation.

The sciences in 『Jeguksinmun(帝國新聞)』 found out to be useful due to its realistic point of view, but was not able to break the Otherness of knowledge and of self-perception. These are merits and demerits of 『Jeguksinmun(帝國新聞)』's sciences.

Key words: history science, domestic science, ethics, self-cultivation, argument of old/new sciences, Gi-Ja(箕子), ParkJoengdong(朴鼎東), LeeHaejo(李海朝), housewife, etiquette, Simoda Utako(下田歌子)